



[이미지 Shutterstock]

경험·관계·나눔, 청소년 장학의 세 가지 조건

DB김준기문화재단 ‘드림빅’ 장학

중학교 3학년 시은(가명)이가 꿈 계획서에 적어낸 장래 희망은 ‘간호조무사’였다. 간호사라고 적었다가 지워버렸다. 지금은 보육원에서 지내지만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한다. 대학 졸업장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나현(가명)이는 ‘부사관’이라고 적어냈다. 딱히 직업군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고 속도도 준다고 해서요.” 꿈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성적도 성과도 요구하지 않는 이상한 장학사업이 있다. DB김준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각지대 청소년 장학 ‘드림빅(Dream Big)’이다. 재단은 보육원과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쉼터 등에서 생활하는 중학교 3학년생 40명을 매년 드림빅 장학생으로 뽑는다. 2024년 사업을 시작해 올해 3기를 선발했다.

이 장학의 목표는 오직 하나.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잘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재단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4년간

매월 ‘꿈 장학금’을 지급한다. 강은정 DB김준기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드림빅은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대신 해주는 장학금”이라며 “아이들이 현실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꿈 꾸고 실현할 수 있게 물심양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 우물을 파지 마라

드림빅은 성적이나 학업이 아니라 ‘꿈’이 중심이 되는 장학사업이다. 전통적인 장학이 ‘한 우물을 파라’고 가르친다면, 드림빅은 ‘다양한 꿈을 꾸라’고 강조한다. 여러 분야를 경험하며 도전하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드림빅 장학의 특징이다.

“드림빅의 ‘빅’은 ‘큰 꿈’이 아니라 ‘많은 꿈’을 의미합니다. 꿈은 많을수록 좋고 언제든 바뀌어도 됩니다.” 새 기수를 맞이하는 ‘출발 캠프’에서 강은정 상임이사는 매년 같은 이야기를 한다.

드림빅 장학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꿈을 지원하는 유연한 장학금 ▶먼저 자립한 선배들의 지속적인 멘토링 ▶연결과 나눔의 가치를 체

합하는 자원봉사 캠프 등이다.

장학금은 학생들이 각자 제출한 ‘꿈 계획서’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영어·수학 학원비로도 쓸 수 있고 댄스 수업이나 보컬 트레이닝, 요리 강습을 받는 데 써도 된다. 재료비, 대회 참가비, 체험 활동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장학금으로 영화를 보거나 K팝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꿈을 찾는 과정에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

드림빅 2기 준서(가명)는 장학금으로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강습비와 대회 참가비, 도복비를 지원받았다. “체력적인 한계와 기술 부족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드림빅 활동을 하면서 꿈은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성실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운동하면서 작은 부상을 겪고 주변 친구들도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오래 운동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체육교사를 꿈꾸던 준서는 스포츠 물리치료사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

드림빅 운영사무국 역할을 하는 ‘틈틈’의 신선 대표는 “장학을 통해 아이들의 꿈이 바뀌는 걸 보면 무척 반갑다”고 했다. 신 대표는 보육원 출신의 자

립청년 당사자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어릴 때를 돌아보면 항상 초조했던 것 같아요. 자립에 대한 압박과 부담이 컸죠. 공부해서 사범대에 입학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방향을 오래 했습니다. 시설은 단체생활이라 개별 활동이 어려워요. 개인이 원하는 걸 해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시설 아동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

드림빅 사업에서 장학금만큼이나 중요한 게 ‘멘토링’이다. 재단은 시설 퇴소와 자립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을 멘토로 선발한 뒤 ‘드림빅 서포터즈’라고 이름 붙였다. 가까운 곳에 사는 멘토 1명과 장학생 4명을 묶어 조를 짜고 지속해서 만나며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선 대표는 “아이들에게는 장기적으로 함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 5면 ‘드림빅 장학’으로 계속

올해의 기부자 50인 찾는다... ‘2026 더기버스50’ 1차 명단 공개

2026년도 ‘한국의 기부자들: The Givers 50’(이하 더기버스50) 1차 명단이 오늘(14일) 공개됐다.

‘더기버스50’은 더버터가 주최하는 민간 주도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파이워크(Pie Week)’와 함께 진행되는 연중 캠페인이다. 파이워크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들의 추천으로 우리 주변에서 의미 있는 기부를 실천해 온 기부자들을 매년 50명 발굴해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더기버스50’ 1차 명단에는 김철성·박대환·박인성·박재성·서영자·이동준(이적)·이선후·이요셉·이진민·정홍남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장애·인권·노동·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나온 기부자들이다.

더기버스50은 비영리단체들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더버터가 기준에 부합하는 기부자를 가려 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10명 외에 남은 40인은 파이워크 캠페인 홈페이지와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 지면을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속성 ▶태도 ▶스토리 ▶영향력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발성 기부보다 꾸준한 기부를 중요하게 보고, 기부에 대한 태도와 철학, 기부자가 가진 고유의 이야기, 주변에 미친 영향력 등을 함께 살핀다. 연령·성별·

직업·기부 분야의 다양성도 고려한다.

올해 진행되는 ‘2026 파이워크’에는 총 23개 비영리단체가 참여한다. 공익활동가 사회협동조합 동행, 구세군, 국경없는의사회, 국제구조위원회, 국제엠네스티,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재단, 열매나눔재단, 월드비전, 초록우산, 컨선월드와이드,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해비타트, 함께하는사랑밭, 환경재단, 홀트아동복지회, IJM코리아(이상 단체명 가나다순) 등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파이워크 캠페인에 동참한다. 최지은·문일요·박선하 더버터 기자

Inside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공석 장기화	C2
지역에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들	C3
장애인 일터에 들어온 AI	C6
수입 절반을 기부하는 CEO의 나눔철학	C7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 문의 및 제보 :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열여덟어른·노란봉투법... 아름다운재단이 캠페인에 진심인 이유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아름다운재단은 자신을 ‘공익 플랫폼’이라고 설명한다. 기부금을 모아 배분하는 일을 넘어 시민과 활동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의이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이제 비영리는 한 영역만 잘해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재단이 비영리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23년 ‘내부선발 1호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꼭 채웠다. 단기 성과보다 재단의 구조와 전략, 조직문화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한 시간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재단은 ‘수상한 복덕방’, ‘다시, 노란봉투’ 등의 캠페인을 통해 노숙위기청년과 불안정 노동 문제를 사회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동시에 기부문화 캠페인과 브랜드 전략, 조직문화 개편까지 병행하며 재단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복잡한 문제는 연결해서 풀어야”

-최근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예전에는 재단이 모금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만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주거 문제 하나만 봐도 청년 문제, 노동 문제, 돌봄, 정신건강, 지역 문제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도 단순히 한 영역만 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은 리베로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기부도 끌어내면서 여러 조직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의제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재단 한 곳이 맡기엔 벅찬 역할 아닐까요.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에는 이름 붙여지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며 “노숙위기청년, 불안정 노동자처럼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대상을 발굴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지난 3년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부 시스템을 바꾸고, 기금 구조도 개편했습니다. 조직문화와 미션·비전도 재정비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임기 내 대외적인 성과도 보여줘야 할 텐데요.
“사실 리더 입장에서 단기 성과를 내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 오래 가려면 보이지 않는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3년의 시간을 ‘30년을 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부 구성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재단은 굉장히 주도적인 조직문화가 강해요. 구성원들이 자기 사업을 ‘내 일’처럼 생각하죠. 장점이 엄청 큰

대신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토론도 많고 의견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양성이 재단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려려 기업과는 반대 방향이네요.
“보통은 효율성과 속도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재단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구성원들과 함께 공감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재정비하는 데만 2년 가까이 논의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변화로 이어졌나요.
“조직문화 만족도 조사 결과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물론 숫자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지만 구성원들의 몰입도나 만족도가 올라간 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조직은 결국 사람이 움직이니까요.”

“캠페인은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
-올해 시작한 ‘수상한 복덕방’ 캠페인이

화제입니다.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노숙위기청년 문제요. 거리 노숙만 노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은 훨씬 복잡하거든요. PC방, 고시원, 지인 집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청년 정책에도, 노숙 정책에도 포섭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거불안에 놓인 청년들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호명’하는 것이군요.
“맞아요. 사실 비영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사회적 의제에 이름 붙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립준비청년도 처음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생기고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노숙위기청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시, 노란봉투’ 캠페인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지금 노동은 너무 다변화됐어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재활용 선별 노동자처럼 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아직 사회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를 먼저 발견하는 ‘사회적 탐색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문화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만으로는 비영리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 비영리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지 않아요. 특히 운영비나 조직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올바른 기부문화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공익활동도 사람과 시스템이 있어야 지속됩니다. 활동가가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하고, IT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 비영리는 여전히 헌신만으로 버티는 구조가 강합니다. 재단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막연하게는 운영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비용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결국 캠페인은 신뢰와 설명의 언어로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재단이 어떤 조직이 되길 바라나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연결망을 만드는 조직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단순히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외면한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재단이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겁니다. 비영리 생태계를 움직이는 힘은 연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일요 더버터 기자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 1조원 조직 ‘리더십 공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열매 리더십 실종

국내 최대 법정모금기관인 사랑의열매의 사무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매년 대규모 모금으로 재난 상황 극복이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리더십 실종’ 상태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비영리 업계에 따르면, 사무총장 공석 사태가 벌써 3개월째 접어들었지만, 후임 선임에 대한 작업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현재 공석인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직은 기관의 유일한 상근 이사직이다. 임기 3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온라인에 공개된 운영 자료에 따르면, 연봉은 1억3648만원으로 모금·배분사업을 비롯해 사무처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직전 임기를 수행한 황인식 전 사무총장의 공식 임기는 지난해 9월 21일까

지였다. 내부 규정상 임기만료 90일 전에 후임 공모 절차가 시작돼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후임자 선임을 위한 공모 서류접수는 11월 20일해야 시작됐다. 늦어진 절차에 대해 사랑의열매는 “영남지역 산불 특별 모금, 폭염·혹서기 등 재난 위기대응을 위한 연중 모금 캠페인 진행, 전국 호우피해 특별모금 진행과 시급한 피해복구 지원 등에 집중하고자 했다”고 답변했다.

후임 선임이 되지 않자 황 전 사무총장은 올해 2월까지 연장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전임 회장인 김병준 회장의 임기만료, 신임 윤여준 회장 선임 시점과도 맞물린다. 결국 사무총장을 선임에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회장과 사무총장 모두 자리를 비웠다.

윤여준 신임 회장이 오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사랑의열매는 3월 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사무총장 선출의 건을 부결시키면서 100일 넘게 진행된 공모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온도탑.

[사진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는 “적격자가 없으므로 재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며 “재공고 일정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사랑의열매는 윤여준 회장을 포함한 임원급 인사 17명 모두 비상임으로 운영 중이다.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후보자를 부

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사무총장 선임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류 심사를 거쳐 최종 2인을 회장에게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구조다. 후보자추천위원회는 회장 추천 3인, 기획·홍보·모금·배분 분과실행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총 7인으로 구성

된다. 후보자 전문성과 적합성을 평가한 위원들의 결과를 이사회가 뒤집은 셈이다.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후보자가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례는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부결시키고 선임된 사무총장은 신필균 전 사무총장이다. 신필균 전 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서면서 사퇴 압박 논란이 일었고 그해 사퇴했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법정 민간기구이지만 임원 선임 때마다 정치적 외풍 논란이 반복됐다”며 “모금과 배분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외부 영향에서 벗어난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기준 9864억원을 모금했다. 모금수입에 복권수입(474억원), 재산수입(288억원), 기타수입(112억원)을 합치면 연간 수입은 1조원을 훌쩍 넘는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지역에 없는 일을 만들고, 사회 서비스 채우는 청년들

청년마을과 사회적 일자리

청년들이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단순히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관계를 잇고, 사라진 생활 기능을 복원한다. 마을의 빈집을 고쳐 카페를 열고, 로컬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전국에 판매한다. 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부족한 교통 서비스도 마련한다. 누군가는 ‘창업’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지역활동’이라 부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년 인구의 활동을 ‘사회적 일자리’라고 규정한다. 사회적 일자리는 단순히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뜻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새롭게 발생한 필요를 해결하는 일이다. 돌봄, 이동, 교육, 문화, 관계망, 지역 자원 유통처럼 시장만으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행정기관이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다. 기존 산업이 줄어든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트렌드와 맞물려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연간 2억원씩 3년간 지원한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61개의 청년마을에서 일자리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청년마을은 ‘사회적 일자리’다

그동안 청년마을은 청년 유입 정책으로 설명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그 청년들이 정착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전문가들은 청년마을의 본질이 외지 청년을 불러들이고 지방을 떠나려는 청년을 붙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역할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한다.

전북 무주군의 청년마을 ‘산타지’는 농촌의 돌봄 공백을 지역 자원으로 메



경남 통영 청년마을 ‘섬바다음식학교’서 운영하는 로컬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통영 바다의 식재료를 활용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만든다. [사진 섬바다음식학교]

우는 실험을 하고 있다. 무주군은 인구 2만3000명 규모의 지역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나 주말에 일 나가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산타지는 이런 현실에 주목해 사회적 농장을 꾸려 돌봄과 배움의 공간으로 삼았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이들은 농장에서 작물을 돌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킹과 문화예술 체험에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관내 경계선지능 청소년으로 돌봄 대상을 넓혔다. 농장이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놀이터이자 배움터가 되고, 부모에게는 생활 속 돌봄 안전망이 되는 셈이다.

황종규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노동 수요가 바뀌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전통적 일자리는 공장, 가게, 농업 등 상업 행위와 연결돼 있었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가 겹친 지역에서는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동시에 돌봄, 교육, 생활 서비스, 지역 자원 유통 등 새로운 사회적 수요가 생겨났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를 누가 감당하느냐다. 행정이 모두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장만으로는 수익성이 낮아 지속되기 어렵다. 황 교수는 “이때 지역에 들어온 청년, 혹은 지역에 남은 청년들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청년마을을 비롯한 마중물 정책으로 기존 산업의 한계를 기술로 혁신하거나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풀어내는 사회적 일자리가 지역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보성군에서는 청년마을 ‘전체차랩’이 사라져가는 보성 차(茶)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령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한때 지역 경제를 이끌던 차 산업이 침체되면서, 청년들은 지역의 차 전통과 스토리를 현대적인 상품과 콘텐츠로 연결하는데 주목했다. 전체차랩을 이끄는 용수진(28) 그린티모시레 대표는 “다원마다 차의 종류와 재배 방식,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모두 다른데 이런 무형의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새로운 유통 구조

를 만들어보성 차의 전통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용 창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든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청년들과 지역 주민 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연고가 없는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관계망을 만들지 못하면 지원 사업이 끝난 뒤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남 통영의 청년마을 ‘섬바다음식학교’는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관계를 기반으로 상생 구조를 만든 대표 사례로 꼽힌다. 통영으로 귀촌한 청년 정영울씨가 운영하는 수산식품 전문기업 웰피쉬는 청년들이 통영에 머물며 섬바다의 식재료를 배우고, 어민과 시장 상인, 지역 식문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은 식재료 조달부터 가공, 포장, 판매까지 상품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축적한 어업 경험과 식문화 지식을 청년들과 나누고, 청년들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메뉴와 제품을 기획한다. 흔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

이 아니라 주민과 청년이 함께 지역 자원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는 창업 훈련인 셈이다.

그 결과 통영 바다장어는 ‘섬바다 장어포’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태어났다. 청년들은 패키지와 라벨 체계를 정비했고, 국내에서는 편의점 입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홍콩에서는 ‘그레이트 푸드홀(Great Food Hall)’ 코리안 페어를 통해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청년마을은 성과만큼 한계도 있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온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원주민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고립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창업하고, 지원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유한나 한신대 경영학 교수는 “청년마을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지역 안에서 얼마나 관계와 신뢰를 축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원금을 통한 초기 유입을 넘어 지역의 경제주체, 주민 공동체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청년과 주민을 연결하는 ‘착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중간지원조직 등이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수익성이다. 청년마을이 만드는 사회적 일자리는 지역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만 단기에는 큰 수익을 내거나 대규모 고용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돌봄, 교육, 문화, 생활 서비스 같은 영역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시장 규모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유한나 교수는 “청년마을을 사회적 일자리 관점에서 볼 때 성과를 고용 숫자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한 명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만들어지는 신뢰 자본과 공동체 회복력, 주민 연결망 같은 ‘집합적 외부효과’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일요·최희은 데버터 기자**

전국 청년마을 61곳으로 늘었다... 신규 10곳 활동 시작

행안부 ‘2026년 청년마을 발대식’

경쟁률 14대 1을 뚫고 선발된 ‘청년마을’ 올해 선발팀 10곳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신규 청년마을의 출범을 알리는 ‘2026년 청년마을 발대식’이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새로 선정된 청년마을 대표를 비롯해 기존에 선정된 전국 51개 청년마을 관계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마을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올해 신규 선발 10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국 61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 선정 마을에는 매년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지



올해 선정된 10개 청년마을 대표들과 진명기(가운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이 지난달 29일 발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원된다.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바꾸고, 지역의 문화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사업으로 연결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은 ▶대전 중구 ‘위브 온 중촌’ ▶강원 철원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 ▶충남 논산 ‘논산의 미래’ ▶전북 김제 ‘논논nonnon’ ▶전북

고창 ‘B비책기지’ ▶전남 구례 ‘나물사관학교’ ▶경북 영주 ‘소백산예술촌’ ▶경북 봉화 ‘그린가드너스’ ▶경남 고성 ‘디노영오연구’ ▶제주 서귀포 ‘오아시스마을’ 등 총 10곳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청년마을 간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여성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

제지원과장은 이날 ‘2026년 청년마을 사업 브리핑’에서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마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합 사업을 추진해 청년마을 간 연대도 강화된다. 이밖에 지원이 종료된 청년마을까지 포괄하는 ‘청년마을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년마을의 사회적가치 성과를 측정해 민간 펀딩과 투자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청년마을 대표들이 참여하는 ‘미니 토크쇼’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지역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강원 고성 ‘결마울’의 엄경환 대표는 “연고가 없는 고성군에 친밀감을 느껴 로컬 창업을 위해 정착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외지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마을 사업은 혼자 할 수 없고, 사

업에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지역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논산 청년마을 ‘논산의 미래’의 손국현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결혼과 육아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동육아나눔터와 의료서비스 확충 등 정주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대식 이후에는 선배 청년마을의 성공 사례 공유,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 투자 및 전문가 특강 등 신규 청년마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깊이 뿌리 내려 주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년마을은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정부도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최희은 데버터 기자

택시 부르고, 챗GPT에 질문하고... 시니어의 하루가 달라졌다

카카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들고 휴대폰 오른쪽 맨 위, 케이스와 가까운 곳을 빠르게 쓸어내려 보세요.” “툽나바퀴 모양이 ‘설정’이란 기능이에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노란 조끼를 입은 시니어 티처의 말에 휴대폰을 든 학생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 학생은 모두 60세 이상 시니어들이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거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려면 두꺼운 돋보기를 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날 강의는 카카오와 카카오 임팩트재단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올해 첫 수업 자리다. 이 수업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일상에 꼭 필요한 IT서비스 활용법을 전국 노인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함께 6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카카오톡·카카오맵·카카오T·카카오페이 활용법 ▶정부 기관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활용법 ▶AI 교육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312곳의 노인종합복지관 등 시니어 기관에서 2514회 교육을 진행하고 약 7000명의 시니어를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올해 사업은 전국 150개 기관에서 시니어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강의가 진행된 5월 4일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생활교육이, 9월부터 11월까지는 금융교육(사각사각페이스쿨)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내 탑재된 AI



지난 4일 서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현장. (사진 카카오 임팩트재단)

프로그램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 교육도 담겼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윤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총괄과장은 “검색어를 골라 입력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포털 검색보다 평소 말하듯 문장으로 묻는 AI가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자연스럽다”며 “AI가 오히려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50%였던 비수도권 교육 비율을 70%까지 확대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기관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늘면서다. 이윤주 총괄과장은 “모집 시작 후 하루 이틀 만에 모두 마감되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이 많은 기관에선 공정성을 위해 추첨제를 도입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노인 복지관에서 신청형 프로그램이 하루 이틀 만에 자발적으로 마감되는 일은 흔치 않다.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티케팅 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과

달리,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직접 기관에 와서 대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의 인기가 높은 건 생활밀착형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과 단순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진행 방식 때문이다. 수강 정원은 20명인데, 시니어 티처만 네 명이다. 교육을 진행하는 메인 티처가 1명, 나머지 3명은 보조 티처로 수업 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시니어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는지 확인한다.

카카오T로 택시 부르기,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카카오페이를 송금하기 등 평소 어르신들이 소외됐던 서비스 사용법을 직접 다루는 점도 특징이다. 실제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법을 몰라 한참을 발만 동동거리는 어르신들이 많다. 시니어 티처 선발과 교육을 담당하는 이

광태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강의를 들었던 어르신 중에서 매주 병원을 가야 했는데, 갈 때마다 택시를 못 불러서 ‘병원 가다가 더 아파지겠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분이 계셨다”면서 “강의 수강 후 미리 택시를 불러 병원에 다니다며 자랑을 할 정도로 만족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윤주 총괄과장은 “카카오톡은 휴대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까지 사용할 정도로 전국민이 쓰는 앱이라 해당 앱을 통한 생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호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강의 커리큘럼뿐 아니라 시니어 티처 구성에도 ‘시니어가 시니어를 돕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다. 교사, 금융인 등 전문 분야에서 은퇴한 50~60대 시니어를 선발해 강단에 세웠다.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현재 120여 명의 시니어 티처가 전국에서 활동 중이다.

교육 과정 또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운영된다. 전직 교사와 전문 강사 등 강의 경험이 있는 시니어가 지원하면 서류와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이후 시범강의를 포함해 총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강단에 설 수 있고, 그동안 강의안과 말투, PPT까지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거듭 손본다. 3년째 시니어 티처로 활동해온 김희정 티처는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휴대전화 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추후 질문을 받고 소통할 수 있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입장하도록 했다. 어르신들은 “카카오톡에 문자 말고 이런 기능도 있는지 몰랐다”며 신기해했다.

두 시간 강의 중 졸거나 집중하지 않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나 아직 못했다” “나는 그 모양이 없다”며 손을 들고 질문하는 통에 수업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강의를 마칠 정도였다. 이날 최고령 학생은 1942년생 정은숙(84) 어르신이었다. 정 어르신은 대뜸 “수업 중 껌을 씹어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게 되고 그사이 수업을 놓칠까 봐 물 대신 껌을 씹은 것”이라고 멋쩍게 웃었다. 수업을 맡은 차의성 시니어 티처는 “한 수업에 총 4명의 티처가 있어 개별적 진도를 확인하고 질문에 응대할 수 있어서 이론이 아니라 실천 사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며 “여러 강의를 진행하지만, 이 교육에 어르신들 호응이 가장 높다”고 했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의 최종 목표는 어르신들에 대한 ‘더 넓은 디지털 포용’이다. 기술의 혁신 주기가 짧아질수록 누군가는 더 빨리 소외되고, 디지털 소외는 일상의 격차로 번진다. AI 시대에 ‘뚝는다’는 것은 결국 그 기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가닿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재단의 시각이다. 문나래 카카오 임팩트재단 소셜임팩트팀장은 “3년간 사업을 해오며 교육 과정은 물론 방식, 지역 확대 등 실제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올해 비수도권 비율 확대, AI 교육 도입을 계기로 누구도 디지털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아동권리옹호 변호사 81명으로 확대

두루 '2026 온 마을 반사회'

공익법단체 두루가 ‘아동·청소년 인권 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온 마을 로(Law)의 4차 연도 성과 공유회 ‘2026 온 마을 반사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참여자들의 경험을 나눴다.

‘온 마을 Law’는 공익법단체 두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 지원을 받아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두루는 사업 초기 약 10명에 불과했던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변호사를 전국 81명으로 확대하며, 법률·복지·교육·시민사회계가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의 기반을 넓혀왔다.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지난 8일 개최된 성과공유회 현장에는 ‘온 마을 Law’ 사업에 참여하는 변호사인 ‘온 마을 Lawyer’를 비롯해 자문심의위원과 시민사회,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정은 두루 변호사는 지난 4년간의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온 마을 Law는 지난 4년간 누적 2220명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했다. 누적 권리옹호 활동은 1197건, 활동 시간은 1만4393시간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섭식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제도 개선 ▶입양 삼



'2026 온 마을 반사회' 참가자들. [사진 두루]

자 재회 가이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어린이·청소년 인권상담소 운영 ▶아동학대·교육방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소송 지원 등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이 활동 경험을 나누는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온 마을 Lawyer와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아동사법, 이주아동 지원,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 등과 관련된 현장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했다.

임성택 두루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법률가, 활동가, 기관이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며 “두루는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활동이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루는 현재 온 마을 Lawyer 5기를 모집 중이다. 활동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두루 홈페이지(duro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는 더버터 기자**

칼럼

공유가치창출로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CSV)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기업의 사회공헌이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과거에는 이윤의 일부를 시혜적으로 나누는 ‘연대의 증표’였다면, 최근의 기업은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사회문제 해결에도 직접 결부시키고 있다. 이른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은 기업의 본업과 사회적 임팩트를 일치시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실천적 진화다. IT(정보기술)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로 독거노인의 말벗이 되어 주고, 물류 기업은 거미줄 같은 망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지원 물품을 더 빠르게 전달하며, 금융 기업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년·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사회공헌이 기업의 부수적인 활동을 넘어 본업의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실행’의 영역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도 현장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국내 주요 기업이 사회공헌에 쏟

아붐은 지출은 연간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숫자만 보면 이미 우리 사회의 거대한 안전망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막대한 물줄기가 메마른 현장에 닿기까지는 수많은 병목 현상이 존재한다. 기업은 자원을 투입할 최적의 파트너를 찾지 못해 수개월을 허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비영리단체나 소셜벤처는 문을 두드릴 창구를 찾지 못해 미로 속에서 헤맨다. 의지는 충만하지만 정보는 분절되어 있고, 열정은 뜨겁지만, 연결의 방식은 구태의연한 것이 현실인 셈이다.

이 대목에서 정부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민간의 혁신을 북돋우는 지능형 설계자로 나설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선보인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crckorea.kr/baroit)은 이러한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이다. 바로잇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과 비영리단체 등 현장의 사회공헌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기업은 자사의 철학에 부합하는 협력 기관을 즉시 찾아내고, 비영리단체·소셜벤처 등은 현장에서 길어 올린 생생한 수요를 직접 제안한다. 정보의 장벽을 허물고 실행의 지름길을 놓는 ‘사회공헌 고속도로’가 개통

된 셈이다.

플랫폼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한 숫자 규모가 아닌 수요·공급의 밀도 및 정합성에서 판가름난다. 정부의 역할은 판을 깔아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바로잇을 통해 연결된 우수 사회공헌 사례를 축적·확산하고, 이를 지역사회 공헌인정제 등 인센티브 제도와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기업의 선의가 일회성 지출에 멈추지 않고, 사회적 명성과 실질적인 성과로 재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사회공헌의 미래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되느냐’에 달려있다. 바로잇은 단순한 매칭시스템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숨 쉬는 상생의 인프라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대한민국 사회공헌 패러다임을 바꾸는 파트너로서 함께 뛰겠다. 5조 4000억원의 자원이 막힘없이 흘러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까지 촘촘히 닿는 그날까지, 정부의 지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의 퀀텀 점프를 위한 여정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

아이들에겐 ‘큰 꿈’이 아니라 ‘많은 꿈’이 필요하다

▶ 1면 ‘드림빅 장학’에서 계속

“보육원이나 그룹홈에 가서 멘토링을 해주는 사업들이 많지만 대체로 기간이 짧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육원에 봉사활동 왔던 형·누나들이 두어 달 가깝게 지나다가 가버리면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가고 나면 거의 관계가 끊어지죠.” 멘토가 바뀌는 경험들이 반복될 경우 아이들이 단절감을 느끼고 관계 자체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드림빅은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멘토들이 쫓 함께하는 형태다.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이다. 비슷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멘토들에게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한다.

“보육원에 사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될까 봐 항상 두려웠어요. 들키면 어찌지, 마음 졸였는데 너무 멋진 멘토 선생님을 보면서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한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얘기하고 나니 정말 별거 아니던데요(웃음).” 드림빅 2기 수현(가명)이가 말했다.

멘토들의 다양한 직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간호사, 공학 직원, 개발자, 사회복지사 등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는 여러 멘토를 만난다는 것 자체로 아이들은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

“시설 아이들은 꿈의 선택지가 좁아요. ‘꿈 계획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진로에 대한 압박, 독립에 대한 부담감이



필리핀 봉사활동에 참여한 ‘드림빅’ 장학생들.

[사진 DB김준기문화재단]

크기 때문이에요. 보육원에 동생이 함께 있는 아이들은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죠. 재능과 적성을 알아볼 틈도 없이 바로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몇 가지 직업 안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멘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꿈이 확장되고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신선)

‘나누는 인재’로 키우는 것

1988년 설립된 DB김준기문화재단은 40년 가까이 장학사업에 주력해 온 공익법인이다. 주로 대학생 장학을 운영하다가 드림빅을 통해 청소년으로 영역을 넓혔다. 사각지대 청소년을 돕고 싶다는 재

단 설립자 김준기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사각지대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개 성과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적이 급격히 오르거나 명문대에 합격하는 드라마틱한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드림빅 장학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성과 측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은정 상임이사는 “재단이나 기업이 사회공헌의 성과를 측정하는 이유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성과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림빅의 경우 설립자와 이사회 등 리더십

이 이 프로그램에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차원에서 함께 장학의 원칙을 정하고 기획한 사업이라 실무자가 설득할 필요가 없죠.”

장학금 사용처나 멘토링 활동은 장학생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은 재단에서 별도로 기획한다. ‘선한 인재 양성’이라는 미션은 재단의 전체 장학사업을 관통하는 맥락으로, 모든 장학에 자원봉사가 핵심 활동으로 포함돼 있다.

드림빅 장학생들은 2년 차때 필리핀 빈민촌으로 자원봉사를 간다. 빈민촌에

서 자원봉사도 하고 홈스테이를 한다. 농사일도 돕고 페인트칠도 하고 시멘트 작업도 한다. “이런 데서 어떻게 자요?” 불평하던 아이들이 헤어질 때는 아쉬워서 현지 가족들을 부둥켜안고 운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고 나누는 삶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다.

1~3기 장학생 중에는 졸업한 뒤에 ‘드림빅 서포터즈’가 돼 후배들을 돕겠다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도움받은 아이가 다시 도움을 주는 선순환 시스템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보육원 출신 멘토 선생님들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선생님이 지금 나와 같은 느꼈다는 것이 반가웠고,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줘서 나아가 힘이 생겼어요. 드림빅 장학생이 되기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죠.”

재단은 자립청년들로 구성된 ‘드림빅 서포터즈’의 커뮤니티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더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장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꿈을 지원하면서 장학생-멘토-재단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윤대근 DB김준기문화재단 이사장은 “장학은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한 사회를 바꾸는 일”이라며 “인젠가 ‘드림빅 서포터즈’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그룹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흐르는 ‘장학의 선순환’을 만든다

강은정 DB김준기문화재단 상임이사 인터뷰

장학은 기업 사회공헌 분야의 ‘스테디셀러’다.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공헌의 유행이 달라질 때도 장학은 살아남았다. 가장 오래된 사회공헌이자 가장 덜 진화한 영역이기도 하다.

1988년 설립된 DB김준기문화재단은 40년 가까이 장학사업에 몰두해온 대표적인 공익법인이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동문 수는 6483명. 누적 장학사업비는 1255억이다. 오랜 시간 이어진 재단의 장학사업이 최근 전환점을 맞았다. 기존의 장학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첫째,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할 것. 둘째, 장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서포트할 것. 셋째,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선한 인재를 양성할 것.” 지난달 28일 만난 강은정 상임이사가 새롭게 정비한 장학사업의 3대 원칙을 들려줬다.

-장학사업을 개편하게 된 이유는.

“클라이언트(고객)의 니즈에 맞춘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누구냐. 바로 장학생들이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장학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우리 재단뿐 아니라 한국의 장학사업들이 대체로 그런 편이다. 재단이 원하는 장학이 아니라 장학생들이 원하는 걸 공부해 거기에 맞춰 사업을 다시 설계했다.”



강은정 DB김준기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나누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재단의 미션”이라고 말했다. 양수열 기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대학생을 위한 ‘드림리더’와 석·박사 대상 ‘드림마스터’ 장학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비’ 지원 장학을 했는데, 2024년부터 ‘생활비’ 장학으로 바꿨다. 학비를 주는 곳은 많은데 생활비 주는 곳은 많지 않다. 다른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게 해줬다. 특히 드림리더 장학의 경우 작년부터 소득분위 제한을 없애고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했다. 매년 60명씩 선발하는데 작년에 1970명이 지원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시설이나 위탁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드림빅’ 장학은 어떻게 탄생했나.

-원래 재단에 대학생 장학만 있었고 청소년 사업은 없었는데 재단 설립자인 김준기 회장이 사각지대 청소년을 돕고 싶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셨다. 보육원이나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보호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림빅 장학을 시작한 이유다.”

-기존 시설 청소년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나.

“양육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이미 많다. 정책도 꽤 촘촘하다. 하지만

자립의 시기에 지원하는 것은 늦다는 게 우리 결론이다. 더 어릴 때, 시설에 있을 때부터 자립을 준비시켜 줘야 한다. 자립을 잘하려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매년 중학교 3학년 학생 40명을 선발해 ‘꿈 계획서’를 받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비, 재료비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준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원되나.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든! 영어·수학 학원비 아니라 댄스, 헬스, 보컬 트레이닝, 미용 등 뭐든 다 도전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이 ‘딴 거 해도 괜찮아’다. 열 번, 스무 번 바뀌도 된다. 장학금을 받았으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이것저것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전통적인 장학과 차별되는 점이다.”

-아이들의 변화가 느껴지는가.

“장학생들에게 매년 ‘꿈 계획서’를 받는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아이가 굉장히 현실적인 꿈을 적는다. 간혹 조무사나 부사관 등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을 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꿈이 꿈다워지는 것을 느낀다. 대학 갈 생각이 없던 아이들이 진학을 고민하고 유학까지 생각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재단이 끝까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역에 남는 장학생이 있다면.

“첫 캠프에서 1박 2일 내내 후드를 뒤집어쓰고 있던 남학생이 있었다. 교육

중에도 밥을 먹을 때도 절대 후드를 벗지 않고 눈도 안 맞았는데 1년간 함께하면서 지금은 수다쟁이가 됐다. 먼저 자립한 선배들이 아이들의 멘토가 돼 4년간 밀착 멘토링을 해주는데, 이런 장기적인 관계들이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장학생들을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이유는.

“자원봉사 활동은 재단 장학사업의 핵심이다. 자신이 받은 혜택을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하는 ‘선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장학은 단지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재단은 드림빅, 드림리더, 드림마스터 외에 베트남에서도 글로벌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DB 보험금융공모전’과 ‘GAPS투자대회’는 각각 16년,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장수 사업이다. 강은정 상임이사는 “뚝심 있게 오래하는 것이 재단의 강점”이라고 했다.

-그 뚝심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장학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단기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재단의 뚝심으로 긴 시간 장학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장학생들이 다시 후배 세대를 돕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움받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돕는 선순환이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그게 장학의 진정한 가치다.” 김시원 대변터 기자

일터에 들어온 AI, 장애인의 업무 장벽을 없애다

장애인 일자리와 인공지능

곽효재(26)씨는 서류를 검토할 때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켜다. 서류를 찍어 챗GPT에 올리고 “이 문서에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 있어?”라고 물으면 몇 초 만에 답이 돌아온다.

공공기관 사무직으로 일하는 곽씨는 저시력 장애인이다. 대출 관련 행정 업무를 맡고 있어 임대차계약서나 재무제표를 확인할 일이 많다. 작게 적힌 숫자 하나, 항목 하나라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업무상 실수로 이어지기 쉽다. 곽씨는 “업무 중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AI로 확인한다”며 “매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돼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출장길에도 AI가 함께한다. 곽씨는 주변을 촬영해 스마트폰에 탑재된 AI에 올린다. “내가 찾는 가게가 이 사진 안에 있어?”라고 물으면 AI가 상하나 주변 정보를 설명해 준다.

AI가 장애인의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사진이나 문서 속 정보를 설명하는 보조 도구가 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보여준다. 발달장애인은 AI와 대화를 반복하면서 소통 방식을 익힌다. 그동안 장애인이 개인의 노력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했던 업무상 어려움을 AI가 보완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 유형에 맞춰 진화하는 AI 보조 기술 그동안 시각장애인 사무직 근로자에게



사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컴퓨터는 절반 짜리 도구였다. 화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조공학기기인 ‘스크린리더’를 활용해도 이미지나 복잡한 표, 그래프 구조를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회의를 할 때도 화면에 공유 자료가 올라오면 내용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어려웠고, 자료 검색에도 비장애인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생성형 AI는 화면 속 이미지를 음성으로 설명해주고, 표와 그래프를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해설한다. 필요한 자료도 음성 명령 한 번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장애 유형에 특화된 AI 보조 기술도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아토뷰어’는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키보드 조작이나 음성만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됐다. 세무·법률·심리 등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도 표나 그래프에 의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준다.

발달장애 영역에서는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개발한 챗봇 ‘누라(Noora)’가 주목받고 있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이 챗봇은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비롯한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워하는 질문하기, 칭찬하기, 공감하기 같은 사회적 의사소통 상

황을 1대1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 운영부 교사는 “발달장애인들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응하는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이런 훈련이 누적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동료와의 협업이나 고객 응대 같은 업무를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교육으로 격차 줄인다

문제는 AI 기술을 대부분의 장애인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울 디지털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AI 사용률은 5.6%로, 비장애인

(15.4%)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공공 부문에서 ‘장애인의 AI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국 훈련기관 38곳에서 ‘AI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기초 과정, 직무 과정, 재직근로자 능력향상 과정으로 구성해 개인의 AI 이해도와 업무 상황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조공학기기와 연동한 문서 작성법, 생성형 AI 프롬프트 설계와 업무 자동화 방법 등을 가르쳐준다. 발달장애에게는 AI 비서를 활용해 개인위생과 일정을 챙기고, 소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시각·발달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 유형을 위한 교육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공단은 올해 안에 3500명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호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운영부 과장은 “이번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가 단순히 AI를 체험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직무와 생활 환경에 맞는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가 장애인 고용 가능성을 넓히려는 기업의 인식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한다.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AI 활용이 확산되면 장애인의 업무 장벽은 낮아지고,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직무 수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데버터 기자

“장애인 고용, AI로 새로운 전환점 맞았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인터뷰

“AI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 문턱을 낮추는 기술입니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AI 시대를 장애인 고용의 위기가 아닌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접근성 장벽이 낮아지면서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지금껏 노동시장 문밖에서 머물렀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사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AI가 빠르게 확산되는 지금이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AI를 통해 장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포용 사회를 앞당기는 것이 공단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인 고용정책도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AI 기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정책도 과거 방식에 머물 수 없다. 공단은 장애인이 변화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산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고 있다.”

-공단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장애인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단에

서는 단계를 세분화한 AI 훈련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직무 영역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AI 기술 접근성이 낮은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전용 커리큘럼을 별도로 구성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AI 기반 신규 직무모델도 개발 중이다. 교육과 직무 개발, 채용 연계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고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채용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에는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 AI 화상면접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공단은 ‘AI 모의면접’을 통해 구직자가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AI 잡케어’를 활용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역량 등을 분석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추천한다. 구직자의 강점과 보완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해 보다 정밀하게 취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AI와 데이터 기반 컨설팅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다.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도 처음으로 의무 기준인 3.1%를 달성했다.

“사업주들이 장애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컨설팅을 통해 그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기업 내 직무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진단하고, 훈련부터 취업, 직장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이 기술 변화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산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신영 기자

적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정교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고용 전략을 제시하는 스마트 컨설팅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장애인을 고용할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 분야에서 변화가 있다.

“AI 보조공학기기 보급을 통해 근무 환경의 물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오는 28·29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AI 기술이 접목된 보조공학기기가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웨어러

블 로봇, AI 탑재 안내 로봇,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협동 로봇 등 AI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은 단순한 보조수단을 넘어 로봇 운영, 유지 보수 같은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술 발전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AI 시대가 장애인 고용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각각 해야 할 역할은.

“정부는 제도를, 기업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AI 시대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직무 발굴, 고용 컨설팅, 환경 개선 등 지원제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장애인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와 조직문화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AI가 빠르게 확산되는 지금이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AI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진입 장벽을 낮추고 포용 사회를 앞당겨야 한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가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장애를 차이가 아닌 다양성으로 바라보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성남=최지은 데버터 기자

“움켜쥐다고 내 것 되진 않더라” 수입 절반 기부하는 CEO의 나눔철학

일상의 기부자들

이진민 아이소이 대표 인터뷰

아버지는 식사 때마다 막내딸을 옆에 앉혀두고 말했다.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건 치사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아버지는 근검절약과 공동체 의식을 삶의 원칙처럼 여겼다. 시간 약속을 어기는 건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며 누구보다 엄격하게 시간을 지키도록 했다.

모든 수입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진민 아이소이 대표는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과 더불어 기독교적 신앙에서 비롯된 사명과 철학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광고 카피라이터, 여성포털 마이클럽 창립 멤버, 천연화장품 브랜드 창업자로 이어진 삶의 선택들에도 ‘남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깔렸었다고 했다. 이 대표를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 아이소이 본사에서 만났다. 그는 인터뷰 내내 성공보다 사명감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꺼냈다. 평생을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냈지만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의 절반을 기부한다고요.

“딱 절반. 월급날이 되면 임금액의 50%를 기부해요. 수입이 발생하는 즉시 계산해서 송금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금씩 비율을 높여왔어요. 30%, 40%, 이제 50%가 됐어요. 여러 기관에 기부금을 보내고 나면 해야 할 일을 하나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기부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도 줄고 심리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진민 대표는 기아대책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필란트로피클럽’에 2018년 위촉됐다. 이진송 기자

-어린 시절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건가요.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도 영향을 미쳤죠. ‘남과 함께 살아야 한다.’ 내가 잘사는 데는 남의 공이 분명히 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광고업계에서 먼저 이름을 알렸죠.

“금강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시작했어요. 그때 여자들은 차장 승진도 잘 못 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노조 여성위원장도 했거든요. 여자들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러다 제일기획으로 옮겨 애니콜 광고를 맡게 됐어요.”

-‘한국 지형에 강하다’는 애니콜 광고는 지금도 많이 회자됩니다.

“1995년 무렵 모토로라 점유율이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 진 짜 원하는 건 ‘잘 터지는 휴대폰’이더라고요. 조사 보고서에는 ‘고감도’ 같은 표

현이 있었는데 저는 산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 통화가 잘 되는 게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지형에 강하다’는 콘셉트를 제안했죠. 그리고 광고가 나가고 반응이 폭발했어요.”

-마이클럽 시절 ‘선영아 사랑해’ 캠페인도 유명합니다.

“직접 기획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광고 대행사에서 제안받은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던 아이디어였는데, 듣자마자 ‘거 거 되겠다’ 싶었죠. 그때 광고가 지금으로 치면 바이럴이고 티징이었어요. 당시엔 인터넷 광고에 돈을 수백억씩 쓰던 때였는데, 우리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골목마다 붙은 ‘선영아 사랑해’ 문구를 보고 사람들이 검색해서 마이클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서버가 터질 정도였어요.”

-승승장구하던 시기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잘린 거죠. 그때 굉장히 충격

이 컸어요. 내가 회사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주인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 실감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그때 달라졌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돈은 내가 움켜쥐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마이클럽에서 나온 뒤 집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딸 저금통 깨서 생활하고,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돈에 덜 얽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부나 나눔은 꾸준히 이어와 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거창하게 ‘기부해야지’라기보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제 피부가 정말 안 좋았는데 천연화장품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혼자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든 거예요.”

-회사 수익금 일부로 케냐 우물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일상을 멈추고 차 한잔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케냐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퍼플티’를 알게 됐죠. 그걸 계기로 화장품과 차 브랜드인 ‘티퍼니스’를 만들게 됐어요. 케냐에서 원료를 가져오는 만큼 다시 그 지역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익금 일부를 기아대책을 통해 케냐 우물 지

원 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에도 ‘좋은 돈’과 ‘나쁜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살리고 돕는 데 쓰이는 돈은 착한 돈이고, 사람의 불안과 욕망을 자극해서 버는 돈은 나쁜 돈이라고 생각해요. 화장품 업계도 과장하거나 겉으로만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이 많아요. 저는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돈 벌고 싶지 않았어요.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이소이 역시 그런 철학 아래 운영되고 있어요. 유해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죠.”

-주변에도 기부를 권하는 편인가요.

“누군가에게 작은 영향이 될 수 있다면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도 기부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시킨 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기부하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용돈을 받으면 자기도 일부를 기부하고 싶다고 하고, 어디 돕고 싶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직원들도 기부에 적극적이에요. 기아대책을 통한 매칭그랜트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도 참 많아요.”

-기부를 오래 이어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가요.

“두려움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사업이 흔들리면 불안했고 돈이 줄어들면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누다 보니 오�히려 덜 무서워요. 돈이 많아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문일호 더버터 기자**

“매일의 도전이 내일의 홈런 된다” 3만 야구팬과 함께한 ‘꿈 응원전’

9~10일 ‘굿네이버스 데이’ 개최

지난 9일 오후 5시, 창원NC파크. 응원가가 울려 퍼지는 야구장 외야 전광판에는 평소와 조금 다른 문구가 걸렸다. “아이들의 꿈을 캐지! 꿈의 홈베이스를 밟다.” 이날 NC 다이노스 선수들은 굿네이버스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섰다. 전광판에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번갈아 등장했다. 어린이날 주간을 맞아 열린 ‘굿네이버스 데이’ 현장이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야구팬들은 ‘아이들의 꿈’이라는 주제와 마주했다. 구장 밖에 설치된 ‘꿈의 학교’ 부스에도 가족 단위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부스 내에는 “어제의 나를 이겨내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매일의 도전이 모여 내일의 홈런이 된다” 등의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남긴 메시지가 내걸렸다.

이번 행사는 굿네이버스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NC 다이노스와 함께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프로야구라는 대중적인 플랫폼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자는 취지다. ‘굿네이버스 데이’는 9~10일 양일간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와 연계해 진행했다. 두 경기는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하며 3만 60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10일 창원NC파크에서 경기 종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제17회 희망편지쓰기대회 전국상 수상 아동과 가족들의 모습. [사진 굿네이버스]

행사 곳곳에는 ‘꿈’이라는 키워드가 배치됐다. 9일 시구는 최근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다녀온 배우 정일우가 맡았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꿈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튿날 경기에서는 경남 양산시 베이스볼클럽 소속 문태윤(13)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꼽은 NC 다이노스 김주원 선수와 시구·시타자로 만났다. 문태윤군은 “앞으로도 계속 야구를 열심히 해서 공도 잘 던지고 실력 있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굿네이버스는 진로 탐색 기회를 충분

히 얻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꿈지원사업’을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 직군의 멘토단을 구성해 진로 탐색과 멘토링, 장학금 등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꿈지원사업에 전국 8483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다.

희망나눔꿈지원사업은 ‘꿈은 혼자 꾸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어른들과 연결해 아이들이 새로운 직업 세계와 삶의 가능성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굿네이버스는 교사·교육복지사·대학생 멘토·지역 전문직 종사자들과

협력해 ‘꿈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운동선수와 요리사, 디자이너, 공무원, 제빵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들이 아이들과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직업 현장 방문이나 소그룹 대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전국 각 지역에서 61개 직업군으로 구성된 324명이 꿈지원단에 참여했다.

NC 다이노스와의 협업 역시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이뤄졌다.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이 아이들의 롤모델로 참여해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 진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다. 지난해 이진민 NC 다이노스 대표와 김진호·김휘집 선수가 ‘꿈지원단’으로 위촉됐고, 올해는 임선남 NC 다이노스 단장과 전미선 굿네이버

스 사무총장이 양 기관간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생 멘토링도 핵심 요소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아동 3~4명당 1명씩 배치돼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눈다. 아이들이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성장 과정을 응원하는 역할이다. 여기에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장학금도 지원된다.

사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참여 아동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사후 조사에서 상상력·희망·낙관성·회복탄력성 등 모든 문항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영역은 ‘공동체 의식’이었다. 친구와 이웃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태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굿네이버스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미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35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굿네이버스가 해외 40여 국에서 활동하기까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다”며 “아이들의 소중한 꿈이 단지 꿈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활발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문일호 더버터 기자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킨 평범한 사람들



깨끗한 물이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김철성 기부자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김철성 기부자는 생명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을 매일 마주한다. 순천 성가톨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식수위생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2016년부터 **굿네이버스**를 통해 아프리카 식수위생지원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등지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우물과 위생시설 조성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6700만원을 기부했다.

김씨는 ‘아프리카에 우물 100개를 선물하겠다’는 목표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식수위생지원시설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7 Star Water’ 현판도 설치했다. 그는 기부를 결정할 때 사업 구조와 예산, 실제 변화 가능성을 꼼꼼히 살핀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다뤘은 경험이 기부의 기준에도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박대현 기부자

박대현 기부자는 어린 시절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은 아동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다섯 살부터 여덟 살까지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했다. 당시 해외 후원자와 연결돼 도움을 받았던 그는 1995년부터 30년 넘게 국내 아동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후원을 멈추지 않았다. 한때는 아동 5명까지 후원했고, 정년퇴직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후원 규모를 줄여야 했을 때도 최소한의 후원은 계속 유지했다. 재취업 뒤에는 다시 후원 아동을 늘려 현재 국내 아동 2명을 정기 후원하고 있다. 그는 “더 많이 돕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어릴 때 받았던 도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며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결국 나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부를 통해 서로의 인권을 지킵니다
박인성 기부자

1995년 스물다섯 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박인성 기부자는 돈을 벌게 되면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연히 고민하던 어느 날, 퇴근길에 ‘국제 인권 포스터전’ 광고를 발견했다. 해운대 리베라백화점에서 열린 전시를 찾아가 그는 그곳에서 처음 **국제앰네스티**를 알게 됐다. 이후 부산 모임에 참여해 열렬결에 지역 소모임 대표까지 맡았다. 부산역과 대학가에서 탄원 캠페인을 벌이고, 학생 1000명에게 서명을 받으며 인권 활동을 이어갔다.

지금은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기부는 32년째 멈추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결국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모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나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잖아요. 기부는 결국 서로를 돕는 일이에요.”



강제노동 피해자의 자유를 꿈꾸는 사업가
박재성 기부자

대구에서 철강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박재성 기부자는 어느 날 우연히 사무실 한쪽에 놓여있던 책을 집어 들었다. **IJM** 설립자 게리 하우겐이 쓴 ‘약탈자들’이었다. 세상에 아직도 강제노동과 인신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다. 어린 시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환경 차이를 보면서 막연히 느꼈던 ‘빈곤’의 문제도 다시 떠올랐다. **IJM코리아**를 검색해 기부를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 1년 후에는 기부액을 크게 늘렸다. 뉴스에서 전쟁, 빈곤, 자살 등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일시후원도 보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 가업을 이어온 박 기부자는 노동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기부는 줄이지 않고 있다. “저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업을 나 혼자 잘 먹고 잘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 기부가 누군가 다시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엄마’라 불리는 봉사자, 44년째 이웃 돌보다
서영자 기부자

서영자 기부자는 1982년, 정기후원 5000원으로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인연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나눔은 44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서울후원회장과 고문으로 활동하며 후원회원들의 활동을 독려했고, 누적 기부금은 1억90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한 달에 한 번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중증장애인들의 작업을 돕는다. 수십 년을 오가며 만난 이들은 이제 그를 “엄마”라고 부른다. 이밖에도 서 기부자는 한부모가족, 저소득 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들으면 후원 회원들과 발 벗고 나섰다. 그는 기부와 봉사는 누군가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킨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기부나 봉사를 더 많이 하지 못해 아쉬울 정도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처럼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



달팽이기금,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동준(이적) 기부자

가수 이적 기부자는 2012년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달팽이기금’을 조성한 뒤 10년 넘게 주거 취약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원해왔다. ‘달팽이’라는 이름은 이 기부자가 활동하던 그룹 **패닉**의 대표곡에서 따왔다. 달팽이처럼 느리더라도,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길을 꾸준히 가겠다는 의미다.

달팽이기금은 곧 시민과 팬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 기금으로 확장됐다. 그동안 400명 넘는 팬이 뜻을 보냈다. 누적 기부금은 7억7000만 원에 이른다. 지원 대상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로 꾸준히 넓혀왔다. 보호자 없이 홀로 생계를 꾸리는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청소년 부모까지 돕고 있다. 이 기부자는 “주거는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시대적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방식으로 나눔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유산기부를 결심한 30대 간호사
이선후 기부자

간호학과에 진학한 이선후 기부자는 졸업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어떤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할까. 그러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을 알게 됐다. 스물세 살, 첫 아르바이트와 함께 기부도 시작했다. “그동안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어요. 그것만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답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제 나름의 답을 찾다가 제가 가진 돈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간호사로 취업한 뒤 일에 적응해 조급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는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질문을 떠올렸다. 이번에도 답은 기부였다. 보험과 유언대용 신탁을 통한 유산기부를 추가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대한민국은 참 부유한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더 힘들게 사는 청년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도와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이요셉 기부자

사진작가인 이요셉 기부자는 2007년부터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국가를 방문하며 사진 재능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케냐, 에티오피아, 차드, 탄자니아, 인도, 네팔 등 세계 곳곳에서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왔다.

특히 2009년 차드를 방문한 경험은 그의 삶을 크게 바꿨다. 깨끗한 물이 없어 수인성 질병에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본 뒤 식수위생지원사업 후원을 시작했다. 이후 책 인쇄와 사진전·그림전 수익금을 꾸준히 기부했고, 지금까지 보낸 기부금은 1억1000만원 규모다. 기부금으로 차드와 니제르, 르완다 등지에는 식수시설이 설치됐고, 수천명의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사진은 결국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라며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보고 공감하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착한 돈은 결국 사람에게 갑니다
이진민 기부자

개인 수입의 ‘50% 기부’를 원칙처럼 지키는 이진민 기부자는 “기부를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한다. 월급과 임대수익 등이 생길 때마다 기부처를 찾아 즉시 이체한다. 그의 기부 인생은 2001년부터 시작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손길을 내밀었다. 2010년부터는 **기아대책**과 인연을 맺고 꾸준히 기부했다. 2018년에는 1억원 이상 기부한 고액후원자 모임인 ‘필란트로피클럽’ 86호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의 기부 철학은 베트남 현지 방문 이후 더 분명해졌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 단순한 일회성 후원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진민 기부자는 “누군가는 태어난 환경만으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걸 직접 보게 됐다”며 “내가 가진 것이 결국 누군가에게 다시 연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가난했던 시간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정흥남 기부자

정흥남 기부자는 1995년부터 30년 넘게 **월드비전**을 통해 국내 아동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그가 처음 기부한 건 사회초년생 시절이다. 출판사에서 월급 30만 원을 받던 때였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는 “나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부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의 아이와 인연을 맺었다. 기부금만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책을 선물하고 가족들과도 교류를 이어갔다. 세월이 흐른 뒤, 후원하던 아동이 성장해 국립의료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후 국립의료원에 입원하게 된 적이 있지만, 부담이 될까 봐 끝내 후원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잘 성장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정 기부자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삶의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2026 파이워크 참여기관

